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구도*

A Study on Working Mothers' Demand for Child Care and Housekeeping Home Service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 교수 박 정 윤**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 혜 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수 서 지원***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 Cho, Hee-Keu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 Song, Hyerim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 Seo, Jiw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orking mothers' demand for child care and housekeeping home services,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supply condition of home services in Korea. Data collection was implemented to examine the service demand of working mothers(n=700) in four area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 home-based child-care dispatch services social enterprises are superior to other private service suppliers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service workers, wages, and quality control. As for child care service contents, the provision of meals, and casual safeguards were mostly expected.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for care providers was found to be in faithfulness, and the certification related with child care was required. An affordable wage range was perceived as ₩3,000~5,000 per hour, and part time services. For the time range, services which commenced before 9 am and terminated after between 5~6 pm were preferred. 2) For housekeeping dispatch services, standard services, including basic cleaning, preparation of meals and side dishes, special cleaning, and washing, were in demand. The required qualifications of housekeeping service providers were similar to those of child care service providers. Possessing certification was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quality; however, personality and career type were important factors. An acceptable wage range was ₩3,000~5,000 per hour and part-time services were preferred. In terms of the service time range, services which commenced between 8~9 am and terminated between 5~7 pm were preferred.

* 이 논문은 2010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위탁연구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전문화·효율화 방안'에 기초한 것임.

** 주 저 자 : 박정윤(E-mail : pjy4838@cau.ac.kr)

*** 교신저자 : 서지원(E-mail : jiwonseo@knou.ac.kr)

▲주요어(Key Words) : 취업모(working mothers), 가정서비스 수요(home-dispatch service demand), 자녀돌봄편견서비스(home-based child-care dispatch services), 가사과건서비스(housekeeping dispatch services)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 여성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의 취업은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의 인식과 상황 변화뿐 아니라,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그에 따른 성장잠재력 및 국가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을 저하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성장동력의 대안으로서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안되고 있다(김혜원, 2009; 여성부, 2009). 다만, 이러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지속적 상승 이면에 주목할 때, 여성인력의 취업으로 인한 생활의 질의 차원은 여전히 매우 열악함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는 생애노동주기의 M-curve,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연령별로 볼 때 출산·육아 부담이 있는 30대 이후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20대 63.6%에서 30대 92.2%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20대 60.8%에서 30대 55.0%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처럼 여성취업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육아부담 사유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편견 등 기타 요인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2007)의 자료에서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1998년의 육아부담 사유가 29.3%였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45.9%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취업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력이 육아휴직 이후 직장

에 미복귀하거나 복귀 후 금방 퇴사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육아·가사문제로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력단절 여성이 이후 재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율, 특히 고학력 여성고용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장시간 및 불규칙한 근로, 일과 가족의 병행이 힘든 경직적인 근무형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여성부, 2009). 여성노동력의 출산, 육아, 가사로 인한 경력 단절 및 불안정성은 출산에도 영향을 주어 합계출산율은 매우 급속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남성과 동등한 학력과 능력을 지닌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생애지속적 노동에의 욕구는 더 이상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충족되기 어려우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필연적으로 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녀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 하에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의 지원, 다양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 예컨대 현금 지원,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지원책 등을 시도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Jo, 2009). 반면, 싱가포르와 같이 10년 만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M-curve가 사라졌음에도 출산율의 회복이 동반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므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출산율 회복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기획이 요구된다 하겠다(Song et al., 2010).

또한 일하는 기혼여성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제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다. 당면한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이나 여성의 취업율 상승의 이면에는 아직도 열악한 여성취업의 조건이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과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정 내 돌봄역할을 수행해 오던 여성인력이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역할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일하는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은 가족정책과 노동정책 영역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고려하면서, 이들의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 전문화 그리고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더불어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기존의 시설보육과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돌봄서비스, 가사 대체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특성과 경제활동 패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제도적 서비스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틈새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내용과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여성이 일상적인 삶에서 직면하는 바, 직업노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의 부담을 해소하며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한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여 지속적인 생애노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슈는 개인 또는 가정생활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는 곧 국가의 책무이다.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노동부, 2008).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 모두 충분한 수준으로 자녀돌봄과 가사수행에 대해 시간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의 체제에 따라 가정 내 자녀돌봄과 가사에 대해 남성보다 더욱 큰 책임과 부담을 지어 왔으므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의 차원에서 나아가, 부모권과 노동권의 보장 맥락에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Jo & Seo, 2009).

특히 과거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의 맥락에서 국가가 어떻게 개별가족의 자녀돌봄을 지원할 것인지는 주요논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녀돌봄 지원서비스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이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때, 어느 목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그 국가의 자녀돌봄 및 보육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식을 강조한다면 자녀돌봄 혹은 보육정책은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며,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방식을 강조한다면 아동발달에 초점을 두면서 다른 정책들이 보조적으로 혼합되어 추진된다. 또한, 가족원에 대한 돌봄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동반되는 다양한 가사노동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모성보호에 치우친 전통적 관점은 보다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다른 가족원의 참여, 특히 부성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제도적 서비스를 통해 가사노동의 절대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자녀돌봄 및 보육정책은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성격으로는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도에는 보편적 보육이라는 방향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의 폭이 대폭 확산되었으나, 시설 미이용 가정과의 형평성, 시설이용 집단의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송혜림 등, 2012). 따라서 향후에는 취업부모의 자녀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상당 부분 민간 주도로 진행되어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가격과 서비스의 내용, 인력 및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수요자에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때 근로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있어 우리사회의 경우 장시간노동이 여전하고, 적절한 가족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며, 가족 내 평등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가진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증가하면 부모, 특히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하거나 혹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남녀근로자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태홍 등, 2009). 따라서 노동권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노동

시장에서의 적절한 시간배분과 더불어 부모권의 차원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를 통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업여성의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고용평등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 2007년 그 일환으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가족내부는 물론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갈등에 직면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인식의 전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장지연 등, 2005; 홍승아 등, 2008)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개인적으로 소득활동과 가사의 역할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 내에 출산을 제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같은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포함되는 제도적 서비스는 보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노동시간정책 등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일정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일-가정 양립이 충족된 상태는 곧 가족친화적 문화가 구축된 상태라 볼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가족친화문화가 조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가정 양립은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여성근로자를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노동력의 지속적 생애노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목표와 더불어,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오던 돌봄노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족영역과 관련된 신사회위험에 해당하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 단순하게 여성취업의 주기가 M-curve를 벗어나는 것이 곧 '성공적으로' 일-가정을 양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M-curve의 해결이 출산을 향상과 동반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곧 여성들이 더 이상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노력 대신 가정을 포기하고 일, 즉 직장생활 중심의 경력 쌓기에 보다 집중할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바,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한다 함은 결혼과 출산 및 돌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가능할 것이다. 즉,

여성취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종을 개발·제공하며 지속적 생애노동을 위해 돌봄 및 가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돌봄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가족돌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가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하는 여성의 지속적 취업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자녀돌봄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 자녀 대상 보육서비스와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 후서비스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의 대표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 그리고 서비스 내용, 가격 차원에서 이용률, 접근성 등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써 틈새와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이러한 틈새는 민간시장의 서비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온 바,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운영주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경력 등에 있어서 수요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특히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어, 일정한 부분 사회적 조정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자녀돌봄 및 가사 부담과 관련하여 그 사회적 분담방식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다양성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즉 주로 맞벌이 가정 여성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고 그 틈새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도출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녀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화 방안은 우리사회에서 저출산의 해소는 물론, 여성인력 개인의 경쟁력의 확보, 중단 없는 여성의 생애노동 보장 등에 기여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3. 일하는 기혼여성의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선행연구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통계청, 2008) 남녀 모두 부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맞벌이 부부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혼 취업여성의 가사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0a)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시간은 남편이 24분, 주부는 2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각각 4분 증가, 9분 감소했다. 우리사회에서 맞벌이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im(2005)의 연구에서는 잦은 이동과 양육자의 잦은 변경, 미아와 방치에 대한 두려움, 어린 자녀에 대한 금욕적 생활의 강요, 전업주부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에 대한 부러움 등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학습지도, 인성발달, 포괄적인 돌봄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Hwang & Shin, 2009) 아내가 남편보다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내의 경우 남편보다 가정역할갈등과 부모역할갈등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모의 직장노동시간대와 노동패턴 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육아지원인프라의 확충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른 정책에 비해 다양성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이삼식 등, 2008). 따라서 향후 가족생활시간의 다양한 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가족원 돌봄 이외에도 일상적인 청소나 세탁, 식사 준비 등의 가사작업 역시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여 오던 영역이며, 절반이 넘는 기혼여성이 취업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도 여성에 의한 가사 수행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다. 2005년 제 1차 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분담 내용에 있어 다림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95%를 상회하는 데 비해, 남성들은 쓰레기 수거와 시장보기를 제외한 영역에서 30% 미만의 참여율을 나타냈다(여성가족부, 2005). 2010년 실시한 제 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사수행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성별 참여수준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여성가족부, 2010). 기혼취업여성의 자녀돌봄 및 가사 관련 어려움과 관련하여 시간갈등 요인에 주목하여 보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들은 성역할 태도와 고용형태, 평균 노동시간, 6세 이하 자녀유무 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요인 가운데 성역할태도가 평등지향적일수록 시간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은 개별가정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정책적 과제

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 가족원 돌봄 및 가사노동의 책임이 더 이상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친화적 여건의 조성에서 사회서비스의 지원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자녀돌봄 및 가사 파견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서비스 이용경험자 또는 현재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7개 문항, 자녀돌봄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 항목 12개 문항, 베이비시터 필요성 관련 5개 문항, 인구사회학적 변수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이유, 형태, 시간, 비용, 서비스 만족도와 이유, 불만족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서비스 요구도는 원하는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선정기준, 적절한 서비스 가격과 지출액, 제공유형, 지불유형, 서비스 이용시간대(시작과 종료), 자격증의 필요성, 전문인력의 자질, 근로계약서 체결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녀돌봄 또는 가사지원 파견서비스의 이용경험 유무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연구에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전국 4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경상)을 선정하여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641부이다. 조사기간은 2010년 7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이다. 조사대상은 자녀연령과 지역, 직업특성 등을 고려한 할당표집, 편의표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SPSS PC 12.0을 활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자녀돌봄 파견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첫째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맞벌이 가정의 주부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8.5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고졸 이하로 32.3%를 차지하고 있다.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인력이 있다는 응답이 46.5%, 없다는 응답이 51%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자녀를 돌봐주는 특별한 인력이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5%, 700만원 이상이 8.7%이며, 200만원대 16.7%, 300만원 22.3%, 400만원대 20.3%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 자신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N	%
Age	20 ~ 29	41	6.4
	30 ~ 39	355	55.4
	40 ~ 49	219	34.1
	50 +	26	4.1
	M(SD)		38.49(9.29)
Educational attainment	<= high school	244	38.1
	college	302	47.2
	graduate school	87	13.6
	N/A	9	1.2
Experience of using service	Yes	325	51.0
	No	296	46.5
	N/A	16	2.5
Household income(/mth)	~ ₩1,000,000	16	2.5
	~ ₩2,000,000	81	12.6
	~ ₩3,000,000	107	16.7
	~ ₩4,000,000	143	22.3
	~ ₩5,000,000	130	20.3
	~ ₩7,000,000	99	15.4
	₩7,000,000 +	56	8.7
	N/A	9	1.4
Employment type	full-time employed	364	56.9
	part-time employed	123	19.2
	self-employed	77	12.0
	others	56	8.8
	N/A	20	3.1
Occupation	professional	120	18.8
	managerial/office worker	259	40.5
	service/sales	147	23.0
	labor worker	40	6.3
	others	66	12.2
	N/A	8	1.3
Work-time flexibility	very unflexible	197	30.8
	unflexible	229	35.8
	average	62	9.7
	flexible	119	18.6
	very flexible	18	2.8
	N/A	15	2.3
Age of the oldest child	0 ~ 1	32	5.1
	2 ~ 7	221	34.9
	8 ~ 13	186	29.5
	14 ~ 19	193	30.5

39.2%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200만원대로 23.8%, 100만원 이하는 19.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취업여성의 근로형태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비율이 56.9%로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시간제 임금근로 29.2%, 자영업 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사하는 직종으로는 관리/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아 40.5%

이며, 서비스/판매직 23%, 전문/경영직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비율이 66.6%, 조정 가능하다는 응답이 21.4%로, 대부분은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녀의 나이는 학령전기(2~7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34.9%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이상이 각각 30%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 맞벌이가계의 평균소득이 약 426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0b), 이상과 같은 소득분포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소득수준으로 볼 때 서민층에 속한 맞벌이 가구임을 의미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연령대와 취업 유형 등을 고려할 때 30~40대와 전일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근무융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맞벌이 가정의 일하는 기혼여성이 가진 속성을 분석한 결과(통계청, 2010b)와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연구결과

1. 자녀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도

1) 이용실태 결과분석

응답자들의 자녀돌봄 현황을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자녀돌봄과 관련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나 대상자 대부분은 자녀돌봄으로 인한 일상적인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 관련 파견서비스 이용 이유는 '일하는 동안 돌볼 사람이 없어서'(85.9%)가 1순위로 나타나, 건강상의 이유나 취미생활, 모임 참석, 긴급한 일 발생 등의 사유보다는 일상적·정기적 차원에서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돌봄과 관련된 파견서비스 이용행태를 보면, 정기적인 이용이 57.1%, 부정기적 이용이 39.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정기적인 형태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Services

Variables	Cagegory	%	Variables	Category	%
child-care burden	very heavy	26.7	service length (/mth)	<=20	36.1
	heavy	46.6		21 ~ 40	8.3
	average	15.3		41 ~ 60	5.6
	not heavy	8.1		61 ~ 80	5.6
	not very heavy	1.7		80 +	38.8
	N/A	1.6		N/A	5.6
reason of using service	no existence of care-giver	85.9	service price (/hr)	₩3,000	13.7
	health problems	4.3		~ ₩5,000	39.2
	social activities	1.1		~ ₩7,000	19.6
	emergency	7.6		~ ₩10,000	21.6
	N/A	1.1		₩10,000 +	5.9
service interval	regular	57.1	servic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1.1
	irregular	39.6		dissatisfied	4.4
	N/A	3.3		average	34.1
service hours (/day)	1 ~ 3	28.7	satisfied	41.8	
	4 ~ 6	37.9	very satisfied	18.7	
	7 ~ 9	18.2			
	10 +	13.6	M(SD)	3.72(.85)	
	N/A	1.6			
Total service hours (/mth)	<= 5	35.2			
	6 ~ 10	7.4			
	11 ~ 15	1.9			
	20 +	53.6			
	N/A	1.9			

Table 3. Reasons of Child-Care Service: Satisfaction vs. Dissatisfaction

Variables	% in the satisfied group	% in the dissatisfied group
Service price	10.0	18.4
Service area	21.1	8.0
Professionality	13.3	14.9
Diligence	43.3	9.2
Agency capability	2.2	4.6
Others	4.4	2.3
N/A	5.6	42.5

다음으로 자녀돌봄 파견서비스 1회당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4~6시간이 3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3시간, 7~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13.6%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자녀돌봄 파견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20회 이상이 5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회 이하, 6~10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80시간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시간 이내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은 시간당 3,000~5,000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00~10,000원, 5,000~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3,000원 이하, 10,000원 이상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여, 자녀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있어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7년도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연구(서문희 등, 2007)에서는 전일제 베이비시터 이용 하루 평균 비용은 30,000~50,000원으로 평균 43,720원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 909,032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일제 사용요금이라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나타나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내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정민자 등, 2006)에 의하면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 부모가 베이비시터의 자격, 이용료, 양육에 대한 기대 등에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돌봄 만족도와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자녀돌봄서비스에 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그 이유로는 인력의 성실성이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서비스의 내용, 인력의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편으로, 자녀돌봄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그 이유로는 서비스의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성실성, 서비스 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요구도 결과분석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돌봄 파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Table 4>, <Table 5>와 같다. 먼저, 자녀돌봄 파견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식사제공, 일상적 보호, 숙제 및 학습지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정서적 지원, 간식 제공, 송영서비스, 학교수업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인력의 성실성과 전문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파견기관의 신뢰성이며, 가격이나 접근성 등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봄 파견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가 어떤 요소를 가장 중시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선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비율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녀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 기관에서만 일반층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기를 원하는 보편적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돌봄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2009년 현재 총 251개 기업 중 보육 관련 기업은 20개에 불과하여(사회적기업연구원, 2009),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적 기업의 돌봄서비스 제공의 총량을 증대하던지, 아니면 민간 제공 서비스의 가격, 질, 안전성, 인력의 자질 등의 수준을 정부나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돌봄 파견서비스의 시간당 적정 비용으로는 3000~5000원이 44.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의

Table 4. Demands of Child Care Service (I)

Variables	Category	%	Variables	Category	%
Service areas	providing meals	37.7	Service selection criteria	price	8.7
	providing snack	18.7		service areas	10.8
	ordinary care	36.2		professionalism	26.2
	welcome/farewell	12.5		diligence	26.4
	helping homework	36.1		agency trust	13.1
	teaching	7.4		stability	10.8
	emotional support	25.6		accessibility	2.3
	N/A	1.3		N/A	1.8
Service price (/time)	~ ₩3,000	15.1	Desirable service provider	government	64.9
	~ ₩5,000	44.5		social enterprise	16.6
	~ ₩7,000	14.3		NPO	9.0
	~ ₩10,000	18.9		private agency	6.1
	~ ₩15,000	3.8	N/A	3.4	
	₩15,000 +	3.3	Service type	part-time	64.0
Service expenditure (/mth)	~ ₩50,000	11.4		half-day	16.7
	~ ₩100,000	9.7		full-time	16.5
	~ ₩200,000	16.2		N/A	2.8
	~ ₩300,000	15.3	Payment interval	per time	38.6
	~ ₩400,000	8.8		per day	8.2
	~ ₩500,000	12.6		per week	14.4
₩500,000 +	26.0	per month		36.8	
			N/A	2.0	

* 중복응답임

표에서 현재 자녀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지불하는 시간당 비용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돌봄서비스에 대한 월 평균 적정 지출액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월 평균 몇 시간 이용할 것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유형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반일제와 전일제는 각각 16.7%, 16.5%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제 이용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는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시간제 이용의 선택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필요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시사하며, 향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는 자녀돌봄서비스 운영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비용의 지불유형에서는 시간제 지급과 월 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 단위의 지급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시기와 관련하여, 주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주중과 주말 모두 필요하다는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말에 필요

하다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자녀돌봄 파견서비스는 주중에 위한 충분한 공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간대별 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오전 시간대는 물론 3시 이후 오후 시간대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오전 8시 이전과 오전 9시 이전이 각각 20.7%, 16.4%로 나타났고, 오후 3~6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하는 서비스 수요도 23.4%, 14.7% 수준이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시간대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부모의 출근 이전과 자녀의 하교(원)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 전 시간대에 시작하는 서비스로 양분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서비스 종료시간에 대한 수요는 오후 7시 이후가 2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시 이후 23.6%, 6시 이후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자녀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서 서비스의 공급이 부모의 직장생활과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생활 시간대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보육 이외의 다양한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

Table 5. Demands of Child Care Service (II)

variables	Category	%	Variables	Category	%
Service provision time	only weekdays	75.0	Certificate demand	not required	15.4
	only weekend	2.6		required of child care certificate	61.2
	weekdays/weekend	19.5		required of other certificates	21.8
	N/A	3.0		N/A	1.7
Service commencement time	before 8:00	20.7	Service qualification	experience	28.2
	~ 9:00	16.4		educational attainment	3.4
	~ 10:00	9.2		age	.7
	~ 12:00	9.0		refinement	3.8
	~ 13:00	1.5		personality	61.8
	~ 14:00	1.8		others	.3
	~ 15:00	4.4		N/A	1.8
	~ 18:00	23.4		very unuseful	1.8
after 18:00	14.7	unuseful	9.0		
Service closing time	N/A	8.9	average	9.4	
	before 13:00	3.1	useful	48.3	
	~ 14:00	2.3	very useful	29.9	
	~ 15:00	4.6	N/A	1.6	
	~ 16:00	4.8	M(SD)	4.05(1.15)	
	~ 17:00	11.3			
	~ 18:00	23.6			
	~ 19:00	22.3			
after 19:00	26.6				
Demand of emergency service	N/A	10.4			
	very unuseful	.5			
	unuseful	10.3			
	average	15.5			
	useful	45.7			
	very useful	26.0			
	N/A	2.0			
	M(SD)	3.98(1.16)			

다는 응답도 21.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베이비시터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서문희 등, 2007)에서는 베이비시터 사업체 93개소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시터 채용시 연령 및 경력을 고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학력이나 혼인상태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별도의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요구와는 상당한 수준의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선발, 채용, 교육훈련시에 이와 같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력의 전문성이나 성실성이 우선 순위로 나타났으며,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질에 있어서도 인성에 대한 요구(6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서비스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7%로 나왔으며, 평균 점수는 3.98로 보통을 상회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기성과 긴급성이 모두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나왔고 필요성 평균 점수는 4.05점으로 나와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자녀돌봄서비스 파견기관의 운영관리에 반영되어야 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가사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도

1) 이용실태 결과분석

본 연구 결과, 먼저 일상적인 가사일로 인한 부담이 있다는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의 부담이 있다는 비율(73.3%)보다는 낮지만, 가사일 역시 많은 맞벌이 가정의 취업주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의 이유로는 자녀돌봄서비스 이용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시간 동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형태는 정기적 이용이 56.8%, 부정기적 이용이 40.9%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자녀돌봄서비스 이용형태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사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은 4~6시간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3시간, 7시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돌봄서비스 이용과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월

평균 가사서비스 이용횟수는 6~10회, 1~5회, 16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0회 이상이 가장 높았지만, 가사서비스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회당 이용시간은 가사서비스와 자녀돌봄서비스가 유사하나, 월 평균 이용횟수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월 평균 이용시간에서는 31~40시간 사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시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자녀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는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자녀돌봄서비스 월 평균 이용시간은 80시간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시간 이내로 나타나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가사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31~40시간 사이가 가장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사서비스 시간당 지불 비용은 7,000~10,000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에 지불

Table 6. Characteristics of Using Housekeeping Service

Variables	Category	%	Variables	Category	%
Household work burden	very heavy	22.6	Service hours (/mth)	~ 10	11.9
	heavy	44.3		11 ~ 20	21.4
	average	23.2		21 ~ 30	2.4
	not heavy	6.7		31 ~ 40	38.1
	not very heavy	1.4		40 +	23.8
	N/A	1.7		N/A	2.4
Reason of using service	work	86.4	Service price (/hr)	~ ₩3,000	9.1
	health problems	8.0		~ ₩5,000	12.7
	social activities	1.1		~ ₩7,000	10.9
	emergency	3.4		~ ₩10,000	58.2
	N/A	1.1		₩10,000 +	9.1
Service interval	Regular service	56.8	Service expenditure (/mth)	~ ₩50,000	8.3
	Irregular service	40.9		~ ₩100,000	12.5
	N/A	2.3		~ ₩200,000	16.7
Service hours (/day)	1 ~ 3	26.6		~ ₩300,000	16.7
	4 ~ 6	53.1		~ ₩400,000	12.5
	7 +	17.2		~ ₩500,000	8.3
	N/A	3.1		₩500,000 +	25.0
	Total service hours (/mth)	1 ~ 5	31.5	Service satisfaction	dissatisfied
6 ~ 10		35.2	average		34.1
11 ~ 15		7.4	satisfied		47.7
16 +		25.9	very satisfied		10.2
			N/A		2.3
			M(SD)	3.76(1.09)	

Table 7. Reasons of Housekeeping Service: Satisfaction vs. Dissatisfaction

Variables	% in the satisfied group	% in the dissatisfied group
Service price	6.9	10.1
Service area	23.0	15.9
Professionality	12.6	15.9
Diligence	44.8	24.6
Agency capability	1.1	8.7
Others	3.4	1.4
N/A	8.0	23.2

하는 비용은 시간당 3,000~5,000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00~10,000원, 5,000~7,000원 사이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편차를 보인 반면, 가사서비스의 경우 절반 이상이 7,000~10,000원 사이로 나타났다. 매달 가사서비스 이용에 지불되는 비용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용적으로 가장 높지만, 비용지출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가사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월 단위 지불비용의 편차가 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76으로서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자녀돌봄서비스 만족도의 수준(3.72)과 거의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인력의 성실성(44.8%), 서비스의 내용(23%)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만족의 이유로는 인력의 성실성(24.6%)을 제외하고는 인력의 전문성(15.9%), 서비스 내용(15.9%), 서비스 가격(10.1%), 파견기관의 운영관리역량(8.7%)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Table 7> 참조). 만족의 이유에서는 자녀돌봄서비스의 경향과 유사하지만, 불만족의 이유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인데, 자녀돌봄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그 이유로는 서비스의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력의 성실성이 자녀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 모두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 가사지원 서비스 요구도

기혼 취업여성의 가사 지원 파견서비스와 관련된 요구를 분석한 결과 <Table 8>, <Table 9>와 같다. 먼저, 원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기본청소와 식사준비가 33.6%로 가장 많았고, 밑반찬 만들기(33.1%), 대청소(29.2%), 세탁(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인력의 성실성이 3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내용, 가격, 파견기관의 신뢰성 등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돌봄서비스 선정의 기준과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 파견 주체로는 정부를 원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고(49.6%), 그 다음이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 민간 영리기관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돌봄서비스와 경향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파견 주체로 정부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2009년 현재 총 251개 기업 중 간병·가사 지원이 33개로서 절대적인 수치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가사서비스의 시간당 적정가격으로는 3,000~5,000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7,000~10,000원이 나타났다. 이 역시 자녀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유사한 결과이다. 월 평균 가사서비스 적정 지출액으로는 100,000~200,000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00,000~3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액수에 대해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유형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자녀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시간제 제공에 대한 선호가 69.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일제와 전일제에 대한 선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자녀돌봄서비스와는 달리, 가사서비스의 경우 전일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서비스의 경우 전일제로 제공되는 유형의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가사서비스비용 지불유형에 있어서는 시간제에 대한 선호가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월 단위 지불로 나타나, 자녀돌봄서비스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시간대 중 시작시간을 보면 오전 9~10시가 2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8~9시가 21.0%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간대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게 고루 분포되어 있다.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오전 8시 이전과 9시 이전 그리고 15시 이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녀돌봄서비스는 조금 더 이른 시간대에 그리고 자녀 하교 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의 시간대를 원하는 집단이 많은 반면, 가사서비스

Table 8. Demands of Housekeeping Service (I)

Variables	Category	%	Variables	Category	%	
Service area	preparing meals	33.6	Price ranges (/hour)	~ ₩3,000	11.7	
	basic cleaning	67.7		~ ₩5,000	46.3	
	dish-washing	7.7		~ ₩7,000	16.2	
	shopping	6.0		~ ₩10,000	20.8	
	clothing	21.6		~ ₩15,000	1.9	
	preparing side-dishes	33.1		₩15,000 +	3.0	
	general cleaning	29.2		~ ₩50,000	11.9	
	N/A	2.1		~ ₩100,000	11.9	
Selection criteria	price	12.9	Expenditure (/mth)	~ ₩200,000	22.2	
	area	13.9		~ ₩300,000	19.9	
	professionalism	15.1		~ ₩400,000	7.9	
	diligence	36.2		~ ₩500,000	10.3	
	trust	11.0		~ ₩600,000	4.3	
	stability	6.5		₩600,000 +	11.6	
	accessibility	1.5		Service type	part-time	69.1
	N/A	2.9			half-day	17.5
Desirable service provider	government	49.6	full-time		7.4	
	social enterprise	22.6	N/A		6.1	
	NPO	14.6	Payment interval	per hour	39.9	
	private agency	8.2		per day	10.3	
	N/A	5.1		per week	13.6	
		per month		31.1		
		N/A		5.1		

의 경우 8시부터 10시 사이에 요구가 집중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를 언제까지 이용하기를 원하는가와 관련하여, 저녁 6~7시가 19.3%, 7시 이후 15.3%, 12시 이전 14.9%의 순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서비스와는 달리, 저녁시간에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점심시간 전에 종료하기를 원하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전성시간을 다소 다르게 분배하여 각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소지(3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소지 필요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보육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녀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소지에 대해 좀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자의 자질로는 인성과 가사서비스 경력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자질(학력, 연령, 교양 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

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인성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비하여(61.8%), 가사서비스의 경우 인성과 가사서비스 경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각 서비스의 제공자 선발과 양성의 기준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가사서비스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1%로 나타났는데, 자녀돌봄서비스의 긴급성(71.7%) 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가사의 경우에도 긴급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나왔고, 평균 점수는 3.99점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필요한 편이다'는 응답에 가깝다. 자녀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사서비스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성인력패널조사를 토대로 한 여성 비공식돌봄 종사자에 대한 연구(김중숙 등, 2007)에서 영리와 비영리 가사 훈련 기관을 통해 추출한 800명의 가사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사하는 바, 이는 곧 서비스의 질 및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Table 9. Demands of Housekeeping Service (II)

Variables	Category	%	Variables	Category	%
Service provision	only weekdays	74.1	Demand of certificate	not required	45.3
	only weekend	3.9		required of related certificates	36.5
	both weekdays/weekend	17.0		required of other certificates	14.2
	N/A	4.9		N/A	3.9
Service commencement	before 8:00	8.2	Service selection criteria	experience	44.9
	~ 9:00	21.0		educational attainment	.2
	~ 10:00	22.3		age	2.0
	~ 12:00	5.1		refinement	1.8
	~ 13:00	7.9		personality	45.1
	~ 14:00	8.5		others	2.8
	~ 15:00	6.2	N/A	3.3	
	~ 18:00	7.7	Demand of emergency service	very unuseful	2.0
	after 18:00	.7		unuseful	12.3
N/A	12.3	average		21.9	
Service closing time	before 12:00	14.9		useful	42.6
	13:00 ~ 14:00	7.9		very useful	17.5
	14:00 ~ 15:00	5.6		N/A	3.8
	15:00 ~ 16:00	6.1	M(SD)	3.84(1.40)	
	16:00 ~ 17:00	5.7	Legal contract demand	very unuseful	2.8
	17:00 ~ 18:00	10.8		unuseful	10.8
	18:00 ~ 19:00	19.3		average	11.3
	after 19:00	15.3		useful	46.8
	N/A	14.4		very useful	25.2
		N/A	3.1		
		M(SD)	3.99(1.35)		

기업은 물론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으로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취업 여성의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 이용의 실태와 관련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돌봄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서비스 이용횟수, 이용시간, 시간당 비용, 월평균 적정비용 등에 있어서는 두 서비스 간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다만, 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일부 유사한 경향도 나타났다. 즉, 서비스 선정기준, 제공주체, 시간당 적정비용, 비용지불유형, 서비스 이용시기, 긴급

서비스의 필요성,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의 성실성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공통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파견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자녀돌봄과 가사지원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와 유사한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향후 서비스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시간제 서비스 이용 확대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 파견 서비스의 시간제 이용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반일제 및 전일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간제 선호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파견서비스 제공자는 기획 단계에서 반일제, 전일제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간제 서비스 제공비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서비스 공급 확대 역시 필요하다.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주중 자녀의 등교 직전, 자녀의 하교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까지의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서비스의 경우 주중 부모가 출근한 다음부터 점심시간까지, 저녁 6시 이후 시간대 등에 서비스 이용 요구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은 파견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시간대 배분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비용의 지불 간격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와 월 단위의 지급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 단위의 지급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 따라서 비용의 지불과 관련된 규정에서 시간제 지급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돌봄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도에서 인력의 자격요건과 비용 지불의사에서 나타난 차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자녀돌봄서비스 인력의 자격에 대한 요구도는 가사서비스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시간당 자녀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적정 비용은 가사서비스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스스로가 가지는 자녀돌봄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가사서비스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서비스 내용의 속성상, 자녀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요구가 가사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결과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실제로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높지 않다는 점은 일관되지 않은 이용자의 가격선호체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심도깊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이와 같은 비일관된 선호체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반적인 이용실태 및 요구도를 볼 때, 이미 파견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큰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이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생애주기상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구의 불균형은 다른 자녀양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재정의 지원이 가정파견 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적용될 경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인

력 선발 및 양성과정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 그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용자의 가격부담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가사와 자녀돌봄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나, 자녀돌봄은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등의 사회적 과제와 맞물리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견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차등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Song et al., 2009), 적은 자녀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소득에서 자녀양육 관련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자녀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는 현행의 지원방식으로는 자녀의 발달적 측면을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가 있음을 고려할 때, 특히 만2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서비스 인력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전문성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와 관련하여,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보육 관련 자격 소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데 비해, 가사서비스 인력의 경우 자격증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많아, 인력 선발과 양성의 기준 및 내용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녀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자의 자격기준이 없거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의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인력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자질이 '인성'이었으며, 서비스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인력과 관련된 '성실성'이었으므로 향후 서비스 인력의 성실성, 신뢰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프로그램이 인력 양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93개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결과(서문희 등, 2007)에 의하면, 베이비시터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에 불과한데, 이는 이용자의 기대와 요구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돌봄서비스 인력의 경우, 보다 질 높은 인력 양성과 배출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시간의 상승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긴급 서비스 마련,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향후 자녀돌봄서비스는 물론 가사서비스의 기획 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은 물론 사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

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서비스인력의 확충은 물론 근로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자녀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선호도에서 정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가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민간 시장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 기관 신뢰성, 질 대비 합리적 가격 등에 기인하는 바,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 관리'가 관건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나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용자들이 정부나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질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기관의 신뢰성, 안전성 등에 있으므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제공 총량의 증대와 이를 통한 이용대상자 범주 확대 혹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공공부문 즉, 정부나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자녀돌봄 및 가사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경우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을 밝힌다.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자녀돌봄과 가사지원을 위한 가정파견서비스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을 규명하거나 각 변인간의 영향, 관련성 등의 심층적 분석 등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파견서비스의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 조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주체별 분석을 실시하고, 나아가 여러 통제변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돌봄이나 가사서비스에 대한 가정파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개별가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획득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부 지원의 방향성 전환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실천적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 김종숙 · 이미정 · 김남희 · 강석훈 · 김난주(2007). 여성인력 패널조사:여성비공식돌봄종사자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태홍 · 유희정 · 강민정 · 전용일(2009).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 연구. 노동부 연구보고서.
-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 노동부.
- 사회적기업연구원(2009). 사회적기업 개요집. 사회적기업연구원 보고서.
- 서문희 · 신나리 · 이정원 · 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송혜림(2010). **아버지, 그 현실과 이상**.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2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송혜림 · 권혜진 · 진미정 · 이현아(2012). **현 정부의 가족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6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 여성부(2009). **피플잡 창출 · 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방향 연구**. 여성부.
- 이삼식 · 오영희 · 이윤경 · 최효진(2008). 2008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지연 · 최은영 · 이정우 · 김지경(2005). 일가족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민자 · 김영주 · 박초아 · 이진숙 · 홍금자(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통계청(2007). 사회조사통계. 통계청.
- 통계청(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통계청(2010a).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0.3.30)
- 통계청(2010b).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통계청 보도자료(2010.5.20).
- 홍승아 · 이미화 · 김영란 · 유계숙 · 이영미 · 이연정 · 이채정(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 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Hwang, H. W. & Shin, J. Y.(2009). A Study on the Role

- Conflict and the Quality of life of Dual Earner Par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4(1), 45-71.
- Jo, D. S.(2009). Women's Work-Family Compatibility is National Competitiveness. *Chosun Ilbo Contribution*.
- Jo, H. G. & Seo, J. W.(2009). The policy needs for the work-family balance for the double income family-child care and household work.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61-81.
- Kim, S. M.(2005). Dual Earner Families' child care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3(6), 105-116.
- Lee, J.(2009).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stress of working women in child care: To enhance child care policies*. Unpublished masters' degree. Kookmin University, Seoul.
- Song, H. L., Jo, Y. H., Jung, Y. G., Go, S. G., & Kim Y. G (2010). A study on the demand and development of child care policy for work family bal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signment Report.
- Song, H. L., Park, J. Y., Lee, W. J., Sung, M. A., Seo J. W. & Chin, M. J.(2009).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 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91-109.

- 접수일 : 2012년 07월 13일
- 심사일 : 2012년 08월 06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9월 11일